

# 연세대학교 2004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변형문제

오르비 논술팀 / Peroz Aramis

## 제시문 (가)

언젠가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림과 소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라." 그의 말에 비춰 보면, 우리는 우스개라는, '웃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달팽이가 거북이 등에 올라타고는 뭐라고 했을까?

"이랴!"

거북이가 한 무리의 달팽이 갱들에게 습격을 당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몽땅 털렸다. 신고를 받고 나타난 경찰이 악당들의 인상착의를 묻자 거북이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듯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바닥에 달팽이 한 마리만 꼬물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녀석을 집어서는 정원의 잔디밭 저편으로 멀리 던져 버렸다. 일 년 후, 그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다. 문을 열자, 이번에도 사람은 없고 달팽이 한 마리만이 바닥에 붙은 채 이렇게 씩씩대고 있었다.

"이봐요, 좀 아까 왜 그런 거지? 제길, 이유나 알고 갑시다."

## 제시문 (나)

소크라테스: (등장하며) 숨결과 혼돈과 대기에 맹세코 나는 아직도 저렇게 무능하고 어리석은 멧덩구리는 본 적이 없어. 까마귀 고깃 먹었나. 한 두 마디도 못 외우고 금세 잊어버리니..... 어쨌든 저 자를 여기 해가 쬐는 곳으로 불러내자. 스트레프시아데스, 이불을 가지고 나와!

스트레프시아데스: 벼룩 놈들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요. (스트레프시아데스, 집에서 이불을 들고 등장)

스트레프시아데스: 소크라테스 선생!

소크라테스: 뭐야?

스트레프시아데스: 이자(利子)를 안 낼 방법이 떠올랐어요.

소크라테스: 말해봐.

스트레프시아데스: 이건 어떻게습니까?

소크라테스: 뭐가?

스트레프시아데스: 테살리아의 무당을 불러서 밤중에 달을 끌어내려요. 그리고는 달님을 둥근 투구함에 넣어 두는 거죠. 거울처럼.

소크라테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스트레프시아데스: 무슨 소용이냐고? 나 참, 달님이 아무 데도 뜨지 않으면 이자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거든요.

소크라테스: 왜지?

스트레프시아데스: 왜라니, 이자는 달로 계산하니까.

소크라테스: 근사하군. 또 하나 문제를 내지. (...) 증인이 없어 불리할 때는 어떻게 상대의 고소를 걸어치우지?

스트레프시아데스: 식은 죽 먹기죠.

소크라테스: 말해 봐.

스트레프시아데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가기 전,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달려가서 목을 매지요.

소크라테스: 바보 같은 소리.

스트레프시아데스: 천만에, 그게 아네요. 내가 죽으면 아무도 기소하지 못 한다 이겁니다.

소크라테스: 잠꼬대 같은 소리. 꺼져! 이제 가르치는 것도 진저리난다!

## 제시문 (다)

가르가멜이 어린애를 낳게 된 상황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향문이 빠져버릴 일이다.

2 월 3 일 저녁, 고드비요(gaudebillaux)를 너무 먹은 나머지 가르가멜의 향문이 빠져버리고 있을 때였다. 고드비요란 쿠아로(coiriaux)의 기름기 있는 내장 요리를 말한다. 쿠아로란 여물통과 프레기모(prezguimaulx)에서 살찌운 소의 고기를 말한다. 프레기모란 일 년에 두 번 풀이 나는 곳을 말한다. 이들 중 367,014 마리를 잡아, 사육제 마지막 날 소금에 절인다. 봄이 왔을 때, 소금기 있는 고기를 기림으로써 술판을 더 잘 벌이기 위해서이다.

선량한 그랑구지에는 이것을 너무 즐긴 나머지 모든 음식마다 한 국자 가득 청했다. 그러면서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는 이 모든 내장 요리가 그다지 권할 만하지 못한 만큼, 조금만 먹으라고 했다. "똥자루를 먹는다는 건, 그만큼 똥을 먹고 싶다는 거지"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열여섯 가마 두 말 여섯 되를 먹었다. 오, 그 얼마나 사랑스런 배설물이 그녀 몸 안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었던가!

얼마 후 가르가멜은 숨을 몰아쉬며 울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사망에서 산파들이 몰려와 아래에 손을 대보았는데, 맛없고 더러운 오물 덩어리가 나온 것을 보고는 어린애인 줄만 알았다. 하나 그것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내장 요리를 너무 많이 먹은 까닭에 여러분이 '직장(直腸)'이라 부르는 곧은창자가 늘어나면서 빠져나온 향문이었다.

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자궁의 태반엽이 늘어나 버렸고, 그래서 태아는 대신 공정맥(空靜脈) 안에 파고들어 횡경막을 따라 올라가 어깨 근처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맥이 두 가닥으로 나뉘는 그 부분에서 왼쪽 길을 택한 태아는 급기야 왼쪽 귀를 통해 나오고야 말았다.

애는 태어나기가 무섭게 보통 애처럼 "앙! 앙!" 하고 울지 않고, 목청껏 "술! 술! 술!" 하며 모든 사람에게 한 잔 하라는 듯 부르짖었으니, 심지어 뵈스(Beusse)나 비바루아(Bibarois) 지방에서조차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여러분은 이처럼 괴이한 출생을 그다지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아도 걱정될 건 없지만, 선량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들은 말이나 책에서 읽은 말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우리의 법규나 신앙이나 이성이나 성서에 어긋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나로서는 성서에서 그런 일에 반대되는 그 무엇도 발견할 수 없다. 가령 하느님의 뜻이 그러했다 할진대, 여러분은 하느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하겠는가? 제발, 그런 헛된 생각으로 정신이 흐리멍텅 어리둥절해지는(emburelucoquez) 일 없기 바란다. 여러분에게 고하노니, 하느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므로 만일 하느님이 원하기만 하신다면, 여자들은 이제부터 것처럼 귀로 애를 낳게 될 것이다.

<문제 1> 제시문들은 모두 웃음의 유발과 관계된 것이다. ‘웃음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1〉 제시문들은 모두 웃음의 유발과 관계된 것이다. ‘웃음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대중에게 웃음을 주는 글이다. 하지만 세 제시문은 웃음의 기능을 통해 사회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가)에서의 웃음은 대중에게 웃음을 주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웃음이다. 반면 제시문 (나), (다)에서의 웃음은 웃음을 통해 그 저변에 담긴 사회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나)와 (다)에서는 웃음이 사회를 비판하는 풍자(諷刺)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가)는 ‘어느 철학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웃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웃음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어서 거북이와 달팽이의 예시를 들어 이러한 종류의 웃음을 직접 대중에게 선사하고 있다. 사회 현실에서 거북이와 달팽이에 대응하는 특정한 부류의 인간을 이러한 우화(偶話)를 통해 비꼬아 비판하고자 하는 기능은 (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가)의 웃음의 목적은 그저 익살을 통해 대중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문 (나)와 (다)역시 풍자적 웃음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주와 이러한 비판의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나)에서 스트레프시아데스는 궤변론자(詭辯論者)이다. (나)의 소크라테스는 스트레프시아데스의 논리가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지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그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나)와 같은 풍자적 웃음의 목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보이고 있는 특정한 대상의 부조리함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반면 (다)에서 웃음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나)보다 보다 범주가 넓으며, 사회의 본질에 가깝다. (다)는 종교적 권위가 부여된다면 어떠한 황당무계한 경우라도 진리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 반어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다)와 같은 풍자적 웃음의 목적은 사회의 대세적 분위기에 대한 부조리함을 대중에게 알려 그들을 계몽하기 위함이다. (967자)